

고대 그리스와 동지중해권

—마틴 버넬의 『블랙 아테나 II: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증거』—

오 홍 식

I. 고대 그리스와 동지중해권
II. 『블랙 아테나 II』

III. 버넬의 제2가설에 대한 비판
IV. 버넬의 공헌

I. 고대 그리스와 동지중해권

국내의 고대 그리스 전공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대학자 발터 부르크트의 저서 *Babylon, Memphis, Persepolis: Eastern Contexts of Greek Culture*(2004)는 기원전 6, 5세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와 오리엔트 사이의 교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미친 오리엔트의 영향을 다룬, 저자(1931년 생)의 평생 연구의 핵심을 담아놓은 문고본 분량의 저서이다. 저자는 호메로스에 미친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오리엔트 문학의 영향을,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인 소위 탈레스와 같은 자연철학자들에 미친 오리엔트의 영향을, 그리스의 프네우마(*pneuma*, 영혼) 또는 프시케(*psyche*) 개념의 형성에 미친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주장하고, 디오니소스 비의나 오르페우스교와 같은 그리스 신비종교의 기원이 오리엔트에 있다고 역설한다.

우리는 헬레니즘 이전 그리고 헬레니즘의 주변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아야 하며, 헬레니즘을 독자적인 성과로서만 축하할 것이 아니라 면면히 존재해온 동지중해권이라는 코이네(*koine*,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상호작용과 대화의 결과로서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¹⁾

‘동지중해권이라는 코이네’라는 말에는 동지중해권에 위치한 그리스, 이집트, 페니키아 등지가 서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들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하였기 때문에 동지중해권을 공동체로서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사이러스 고든은 그리스 문명을 고립된 문명이 아니라 오리엔트와 그리스가 포함되는 ‘청동기 시대의 코이네(*Bronze age koine*)’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학자였다.²⁾ 고든은 기원전 14세기와 13세기에 우가리트에서 가나안어로 기록된 신화들에서 성서 및 호메로스와 의 연결점을 발견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1955년에 『호메로스와 성서』라는 저서로 출간하였다.³⁾ 그는 이 책 말미에서 “그리스 문명과 히브리 문명은 모두 동지중해의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유사한 구조를 지녔다”고 결론지었다. 부르커트는 마틴 버넬도 고든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학자로 언급하고 있다.⁴⁾ 부르커트가 주로 기원전 6, 5세기경 동지중해권이라는 코이네를 주장한다면, 고든과 고든의 영향을 받은 버넬은 청동기 시대 동지중해권의 코이네를 주장한다.⁵⁾

1) Walter Burkert, *Babylon, Memphis, Persepolis: Eastern Contexts of Greek Culture*(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남경태 옮김, 『그리스 문명의 오리엔트 전통』(사계절, 2008), p. 161(필자가 한글 번역을 약간 바꾸었다). 앞으로는 『그리스 문명의 오리엔트 전통』으로 약기.

2) 『그리스 문명의 오리엔트 전통』, p. 14.

3) Cyrus H. Gordon, “Homer and the Bibl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26 (1955), pp. 43-108.

4) 『그리스 문명의 오리엔트 전통』, pp. 14-15.

5) Martin Bernal,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The Fabrication of Ancient Greece 1785-1985*, 오홍식 옮김, 『블랙 아테나: 서양고전문명의 아프리카·아시아적 뿌리』, 1(소나무 출판사, 2006), pp. 378-382에 있는 <사이러스 고든> 항목을 보시오. 앞으로는 『블랙 아테나 I』로 약기.

고든 이외에도 버넬에게 영향을 미친 소수의 학자들이 있다. 마이클 애스터는 1967년에 다나오스와 카드모스, 그리고 그가 ‘치료자 영웅들(healer heroes)’이라고 부른 인물들(이아손과 벨레로폰 등)의 신화에 관한 주요 연구를 담은 『헬레노세미티카』를 출판했다. 여기서 그는 구조와 명명법에서 나타나는 그리스 신화와 우가리트 신화, 그리고 성서 사이의 세세한 유사점을 보여주려 했으며, 더욱이 오리엔트인들에 의한 그리스의 식민화를 다룬 카드모스 신화와 다나오스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케네 그리스의 몇몇 지역에서 페니키아어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케네 문명 전체가 본래 고대 동방의 최서단 주변부 문화였다”고 주장했다.⁶⁾

버넬은 애스터에게도 영향을 미친 스위스 학자 빅토르 베라르에게 영향을 받았다. 1894년에 빅토르 베라르는 『아르카디아 제식의 기원』에서 청동기 시대 펠라스고이인들과 관련된 아르카디아 제식이 헬레네스의 제식이 아니라 켈족의 제식이라고 결론지었다.⁷⁾

고든·애스터·베라르가 청동기 시대 그리스에 미친 켈족의 영향을 주로 논하였다면, 베라르와 동시대 사람인 프랑스 고전학자 폴 푸카르는 이집트의 영향을 진지하게 주장하였다. 엘레우시스 비의에 관한 상세한 연구와 이집트학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기념비적인 연구서인 『엘레우시스 비의』(1914)에서 그 신비의식이 이집트에서 유래했다는 고대 전승을 논박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⁸⁾ 엘레우시스 신비의식의 핵심이 불멸성의 추구였으며, 그것이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믿음이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신비의식에 입문함으로써 사람은 상징적인 죽음을 통해 불멸의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관념은 고대 근동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이

6) Michael C. Astour, *Hellenosemitica: An Ethnic and Cultural Study in West Semitic Impact on Mycenaean Greece*(Leiden: Brill, 1967), pp. 357-358.

7) Victor Bérard, *De l'origine des cultes arcadiens: Essai de methode en mythologie grecque*(Paris, 1894).

8) Paul Foucart, *Les Mystères d'Eleusis*(Paris, 1914).

집트에서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고대의 저자들은 영혼의 불멸성에 관심을 가졌던 피타고라스, 오르페우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의 인물들이 그것에 관해 이집트로부터 배웠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한다.⁹⁾

버넬의 주장은 엄격히 말하면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이러한 선배학자들의 선구적인 아이디어가 그 바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구에 관련된 논문이나 책들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연구사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사가 전공인 필자는 오리엔트에 관한 다른 책을 참고하지 않고서도 이 책만으로도 그의 논지를 개략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한 문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해주고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부각시킨다. 사실 버넬이 그 방대한 책의 내용을 자신의 직접적인 연구를 통해 채운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때로는 자신의 주제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학자의 연구를 재해석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면, 멜라트는 1958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 「아나톨리아 및 에게해권에서 전기 청동기시대의 끝」에서 기원전 1900년경 중앙 아나톨리아의 수많은 중요 지역들이 불타거나 파괴되었다고 기술하면서 이는 히타이트가 침입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나, 버넬은 멜라트가 말하는 그 파괴를 세소스트리스의 아나톨리아 정복의 결과로서 재해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한다.¹⁰⁾

『블랙 아테나 II』는 12장으로 구성된, 600여 쪽에 이르는 두툼한 책이다. 너무 오래 전의 역사인데도, 1장부터 12장까지 마치 하나의 이야기인 양 유기적으로 잘 엮여져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는 지리적으로는 동지중해권 전체, 시기적으로는 청동기 시대(3300~1100 BC) 전체를 꿰는 큰 흐름이 무엇인가를 버넬이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

9) 『블랙 아테나 I』, pp. 117-118을 보시오.

10) M. Bernal, *Black Athena I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New Jersey, 1991), pp. 218-223, 제5장에 있는 항목 <Destruction in Anatolia: Kültepe II and Karum Kanesh>을 보시오. 앞으로는 각주에서는 BA2로, 본문에서는 『블랙 아테나 II』로 약기.

능한 것이다. 농업상의 풍요와 그 풍요를 기반으로 삼은 세련된 이집트 문명이 크레타, 키클라데스 제도, 그리스 본토를 포함하는 에게해 문명의 발생·유지·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인식이다. 이집트의 밀과 이집트의 문화가 동지중해권의 왕궁을 중심으로 한 문명들의 밑받침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버넬의 진정한 천재적 창조성은 수많은 학자들의 개별적이고 흩어진 연구결과들을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긴 이야기로 엮어낸 데에 있다.

필자는 II장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며 『블랙 아테나 II』의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버넬의 수정고대모델을¹¹⁾ 떠받치는 두 가설 중의 하나인 그가 주장하는 다나오스의 그리스 도래 연도를 비판해볼 것이며, IV장에서는 그가 청동기 시대 미케네 그리스의 역사 연구에 공헌한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II. 『블랙 아테나 II』¹²⁾

『블랙 아테나 II』는 전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장은 이집트 고왕국과 그리스의 관계, 4~6장은 중왕국과 크레타의 관계 그리고 중왕국 제12왕조의 파라오 세소스트리스의 정복의 역사성 여부에 관하여, 7~9장은 히소스에 관하여, 10~12장은 신왕국 시기 ‘이집트의 평화(Pax Aegyptiaca)’와 그리스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11) 마틴 버넬이 말하는 ‘고대모델’은 고전기와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인들이 미케네 문명의 형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였다. 이에 따르면,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2천년기에 이집트인과 페니키아인이 그리스를 식민화한 결과로서 발생했다. 버넬은 고대모델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또는 모르고 있었던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 자신의 모델을 ‘수정고대모델’이라고 칭한다. 그의 수정고대모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III장을 보시오.

12) II장의 각주의 대부분은 버넬이 B42의 각 장에 단 각주이다. 필자가 그가 달아놓은 각주를 그대로 단 이유는 그가 기존의 어떤 연구결과를 이용하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1. 이집트 고왕국과 그리스

1장 ‘왕궁 이전의 크레타, 기원전 7000~2100년’은 크레타 문명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 렌프루 같은 고립론자는 크레타 문명은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몬텔리우스와 차일드가 주창하고 와인버그나 브래니건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유지해나간 견해, 즉 크레타는 신석기시대보다 전기 청동기시대에 다량의 문화적 영향을 전체적으로는 근동으로부터, 특정하게는 이집트로부터 받았다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버넬은 후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2, 3장은 ‘기원전 3천년기(千年期) 보이오티아 및 펠로폰네소스에 대한 이집트의 영향’을 문헌증거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이집트가 그리스에 관개, 간척 따위에 영향을 미쳤음을 살피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 여신과 포세이돈은 자주 다툰다. 이를 파넬은 “원주민의 더 이른 토착 숭배의식과 새로운 정착자에 의해 도입된 후기의 숭배의식 사이의 갈등”으로 보고 있고, 부르커트는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다툼은 젊은이와 늙은이 사이의 세대적 갈등을 상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버넬은 “아테나와 포세이돈 관련 신화—나는 이 신화가 습지를 길들이려는 투쟁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는다—는 전기 청동기시대부터 그리스의 배수 및 관개에 이집트가 연루되면서 생겨난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아테나 대 포세이돈의 다툼은 이집트 신화의 치수의 신 네이트 대(對) 무질서의 신 세트의 갈등이 원형이라고 주장한다. 신화·전설·지명의 어원과 고고학적 증거를 종합하면서, 그는 기원전 2300년경 인도유럽어의 유입 이전에 보이오티아·아르폴리스·아르카디아에 이집트어와 셈어를 말하는 자들에 의한 대규모의 지속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결론짓는다.

2. 이집트 중왕국과 크레타, 그리고 파라오 세소스트리스

제4장 ‘크레타의 옛 왕궁기와 이집트 중왕국, 기원전 2100~1730년’은 1730년경 히소스 시대의 개막 이전에 크레타에 대한 이집트 중왕국 제

11왕조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기원전 2천년기 크레타 황소 숭배의 기원을 놓고 가장 자주 제안되는 가설, 즉 기원전 7천년기 샤탈 휘유크(Çatal Hüyük, 아나톨리아의 남부) 신석기 문화의 강력한 황소 숭배에서 유래되었다는 부르커트의 기원론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¹³⁾ 아나톨리아에서든 에게해권에서든 황소 숭배를 입증할 수 없는 4천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소 숭배의 이집트 기원론은 지리적으로 대단히 가깝고 시기적으로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버넬은 주장한다.

크레타의 황소 숭배는 기원전 21세기에 대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때 제11왕조가 이집트를 재통합하고 Mntw(몬트) 황소숭배를 진작하면서 해외로 영향력을 펼쳤다. 그 신은 멘투호테프-Mentuhotep, 'Mntw가 만족하시다'-라는 왕명을 지닌 제11왕조 파라오들의 수호신이 되면서 국가적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버넬은 미노스의 형제의 이름 라다만티스(Rhadamanthys)를 *Rdi Mntw('몬트가 주다' 또는 '몬트가 주었던 자')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황소숭배는 중왕국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고왕국에는 Mn이라는 이름과 연계된 황소 숭배가 있었고(민 황소-미노스의 황소 Mino-tauros), 또한 Mn은 개국자 파라오 또는 입법자의 칭호이기도 하였다(메네스-미노스). 그리고 오늘날의 카이로 북동쪽에 위치한 헬리오폴리스에는 므네비스(Mnevis) 황소 숭배가 있었는데, 그것의 이집트 이름에는 상형문자 𐀓 (꼬불꼬불한 성벽-라비린토스/미궁)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버넬은 크레타 황소숭배가 이집트로부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제5장과 6장의 제목 '세소스트리스'에서는 기원전 20세기 후반 중왕국 제12왕조의 파라오로서, 고대그리스 저자들의 기록에 따르면,¹⁴⁾ 아

13) B42, pp. 165-166. W. Burkert, *Greek Religion*, J. Raffan, tra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Oxford: Blackwell, 1985), p. 37.

14) 헤로도토스(II.100-110), 디오도로스(I.53.5-58.2), 아폴로니오스(IV.260-80). 그리고 이집트 사제 마네토(frs. 32, 34-36)도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라비아, 리비아, 에티오피아, 인도 접경, 스키티아, 콜키스를 정복한 세 소스트리스 정복의 역사성 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버넬에 따르면 미케네 그리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들은 아니다. 그는 다나오스나 카드모스에 관한 고대 그리스 저자들의 기록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예로서 세소스트리스 정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3. 힉소스와 크레타·테라·미케네 그리스

제7장 ‘테라 폭발’은 힉소스 시대인 기원전 18~16세기를 다룰 때, 연표적 기준이 되는 테라 폭발의 연대를 설정하는 데에 할애되었다. 1939년 이래 50년 동안 스피리돈 마리나토스의 주장에 따라 테라 폭발은 도기 유형에 따른 시대 구분인 후기미노아IB(LMIB)기(期)인 기원전 1450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믿어져왔다.¹⁵⁾ 그러나 이 점을 철저히 파보았지만 화산 잔해 밑에서는 후기미노아IB 도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오늘날에는 폭발이 후기미노아IA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버넬은 과학자들이 1980년대 이래 방사성 탄소, 수령연대학 같은 방법을 통해 얻어낸 연구결과인 1628년 설을 받아들이고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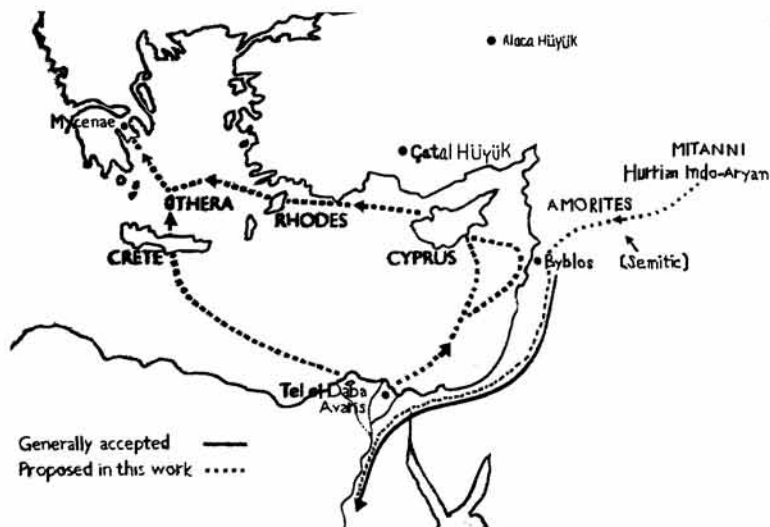
제8장 ‘힉소스’에서는 힉소스의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인종으로 구성되었는지, 달리 말하면 힉소스는 셈족으로만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인도유럽인들과 관계가 있는 후르루인들도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다. 버넬은 힉소스 시대가 기원전 173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아나톨리아의 남동쪽에 있었던 후르루인들이 언제 시리아 북부로 진출했느냐에 이 문제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연표들 중에서 ‘긴’ 또는 ‘중간’ 연표를 받아들인다면 힉소스에 후르루인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그가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학자들도 그러하지만, 미케네 그리스의 수갱묘는

15) S. Marinatos, "The Volcanic Destruction of Minoan Crete," *Antiquity*, 13(1939), pp. 425-439.

16) *Oxford Classical Dictionary*(3rd edition, Revised, 2003) 중에서 항목 ‘Minoan Civilization’ 항목을 집필한 John Bennet도 이 폭발연대를 받아들이고 있다.

셈족의 분묘 양식이 아니라 아나톨리아의 분묘 양식이기 때문이다).

1925년 에두아르트 마이어는 초기 인도유럽인의 팽창에 관한 논문에서 인도유럽인이 후르루인-이들이 미탄니 왕국을 세웠다-에게 미친 중요한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히소스의 주류는 셈족이지만 인도유럽인과 후르루인도 일부를 구성하고 히소스가 시리아, 이집트, 에게해권으로 이동하는 데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¹⁷⁾ 버넬은 마이어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이집트 사제 마네토는 히소스를 먼 ‘동쪽 지역’으로부터 온 ‘모호한 종족의 침입자’로 기술하였는데, 이집트인들은 셈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버넬은 ‘모호한 종족의 침입자’를 후르루인으로 보고 있다.



<그림 1> 히소스의 이동 경로

17) E. Meyer, "Die Volkstämme Kleinasien, das erste Auftreten der Indogermanen in der Geschichte und die Probleme ihrer Ausbreitung," *Sitzungsberichte der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34(1925), p. 253.

제9장 ‘크레타, 테라, 미케네 문명의 탄생, 18·17세기’에서는 히소스의 역동성이 에게해권으로 퍼져나가 지속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이르게는 20세기 초 에두아르트 마이어 같은 학자들이 이를 주장했고, 최근에는 캠브리지의 고고학자인 프랭크 스타빙스가 미케네의 수갱묘들이 히소스 군주의 묘라고 주장했다.¹⁸⁾

도기연대로 중기미노아III-CAH에 따르면 1700~1600, 버넬에 따르면 1730~1675 BC-에 새롭고 놀라운 무기인 검과 전차가 크레타에 도입되었다. ‘검’을 뜻하는 두 가지 주요 그리스 단어인 크시포스(xiphos)와 파스가논(phasganon)에 대한 개연성 있는 이집트 어원과 셈 어원이 논의되었지만, 인도유럽어에 속하는 단어에서는 그 어원을 찾을 수 없다. 이 시기에 도입된 두 가지 중요한 예술적 주제는 날개 달린 스팅크스와 그리핀이었다. 스팅크스는 훨씬 오래 전에 이집트에서 기원했지만, 기원전 18세기 말 크레타에 나타난 날개 달린 스팅크스는 시리아적 형태였고 특히 히소스에 관련되었다. 매 혹은 독수리의 머리를 지닌 사자(獅子)인 그리핀-버넬은 그리핀(gryps grypos)이 가나안의 케룹(kerûb, cherub, 공동번역 구약성서에서는 ‘거룹’)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도 특별히 시리아적 형태로 도기연대 중기미노아III에 크레타에 도입되었다. 그리핀이 크노소스의 가장 큰 크레타 왕궁과 그리스 본토의 필로스 왕궁에서 옥좌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날개 달린 스팅크스처럼 그리핀은 히소스 왕권의 상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크레타가 하 이집트로부터 온 히소스 전사들에 의해 기원전 18세기 후반에 정복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상기의 증거로 보건대 개연성이 높다는 버넬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미케네 그리스의 수갱묘는 전반적으로 중기헬라스III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나톨리아 고고학자인 마흐텔트 멜링크와 제임스 물리는 알라자 휘위크의 매우 비슷한 무덤과의 연계를 생각하며 아나톨리

18) F. H. Stubbings, “The Rise of Mycenaean Civilization,”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 2 part 1(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rd ed., first published 1973), pp. 627-658.

아를 거쳐 에게해권에 미친 영향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영향이 물질문화와 언어 같은 여러 국면에도 반영되었다고 주장했다.¹⁹⁾ 그러나 알라자 휘위크를 그리스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데는 시간적·공간적 난점이 있다. 아나톨리아 수갱묘는 그리스의 것보다 적어도 500년 전 것이고, 지리적으로 두 무덤 사이에 어떤 비슷한 무덤도 없기 때문이다. 버넬은 히소스에 의해 동아나톨리아, 시리아, 이집트, 크레타를 통해 그리스 본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의문은 수갱묘가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전래되었는가이다. 제임스 물리는 기원전 1700년경 북동으로부터 그리스로 인도유럽어를 말하는 자들의 최초 침입이 있었다고 가정했다. 로버트 드루즈는 전차를 탄 인도유럽인이 배로 아르메니아로부터 그리스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²⁰⁾ 그런데 물리와 드루즈의 이론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론이 어떤 전승의 지원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코카서스로부터 그리스로의 이주의 길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쪽 경로는 수갱묘 물질문화에서 보이는 시리아적, 이집트적,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이집트적’ 요소-이집트 요소를 조야하게 소화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버넬은 적어도 수갱묘의 몇몇 주인과 그들을 이은 장기 지속의 왕조는 현재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한다. 쿠르디스탄은 동부 아나톨리아, 북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남코카서스를 망라한다. 그는 기원전 18세기 전반 인도아리아어와 후르루어를 말하는 그곳 사람이 이집트인이 히소스라고 불렀던 집단의 핵을 형성했다고 본

19) M. J. Mellink, "The Royal Tombs at Alaca Huyuk and the Aegean world," in S. S. Weinberg, ed., *The Aegean and the Near East: Studies Presented to Hetty Goldman* (Locust Valley, NY: Augustin, 1956), pp. 55-56; J. D. Muhly, 'On the Shaft Graves at Mycenae,' in M. A. Powell and R. M. Sack, eds., *Studies in Honor of Tom B. Jones* (Kew-Forest: Butzon and Bercker & Neukirchen-Vluyn, 1979), p. 317.

20) R. Drews, *The Coming of the Greeks: Indo-European Conquests in the Aegean and the Near Ea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p. 181-183.

다. 비록 고고학적 증거는 모호하지만, 기원전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힉소스는 시리아-팔레스타인의 큰 지역을 지배했고 매우 빨리 '셈화'되었으며, 지도자들 중 일부가 계속해서 후르루어와 아마도 인도아리아어도 말했다 하더라도 공동의 언어는 서부 셈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기원전 1730년대에 힉소스는 하이집트로 이동했고 그곳에 파라오의 왕조를 창립했으며, 힉소스 군주들의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 왕조에 충성을 바쳤고, 그 직후 원정대가 출발해 크레타, 키클라데스, 남부 그리스의 비옥한 평원을 정복했다고 주장한다.

4. 신왕국 시기 '이집트의 평화(Pax Aegyptiaca)'와 에게해권

제10, 11, 12장은 기원전 16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집트 신왕국과 미케네 그리스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먼저 버넬은 제10장에서 이집트와의 새로운 동시대사건들에 근거해 그리고 테라 폭발의 연대 재설정에 따라, 모든 후기 청동기시대 에게해권 도기연대를 상향 재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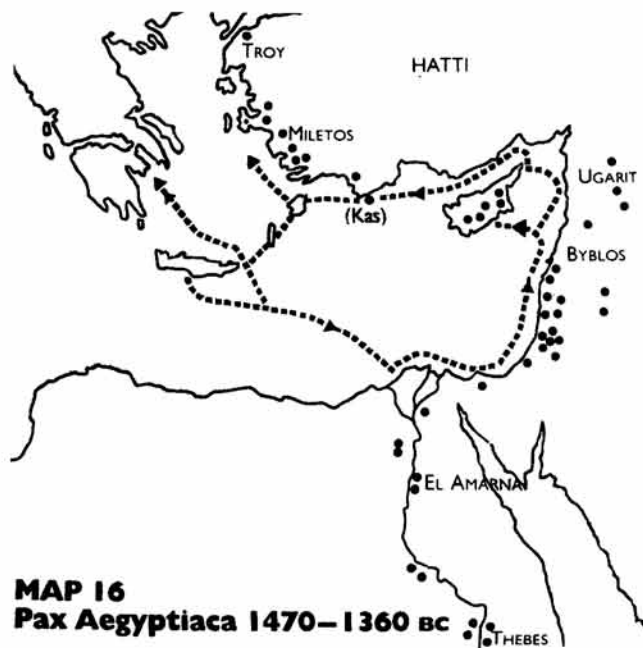
<표 1> 상향 조정된 버넬의 에게해권 도기연대

| 도기연대 | CAH ³ | 버넬 | |
|-----------|------------------|-----------|-------------------------|
| 후기미노아IA | 1600-1500 | 1675-1600 | 1628, 테라폭발 |
| 후기미노아IB | 1500-1450 | 1600-1520 | 마리나토스가 생각했던 폭발연대는 1450년 |
| | | | |
| 후기헬라스IIIA | 1400-1275 | 1470-1370 | |
| 후기헬라스IIIB | 1275-1180 | 1370-1220 | |
| 후기헬라스IIIC | 1180- | 1220- | |

CAH³(1973)은 1980년대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리스의 도기 후기헬라스IIIA와 B는 동지중해권 거의 전역에 걸쳐 다량으로 발굴되었다. 일부 학자는 이러한 평화와 번영이 '미케네의 평화(Pax Mycenaeanica)'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버넬은 이집트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기원전 1470년부터 1370년까지 이집트가 그 지역에서

지배적인 세력이었고 기원전 13세기 말까지도 군사적·정치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세력으로 남았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미케네 그리스의 교역과 번영이 ‘이집트의 평화(Pax Aegyptiaca)’ 하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도 2> ·점 표시는 미케네 도기 후기헬라스IIA와 B가 발굴된 지역들을 나타낸다(BA2, p. 546).

1) Pax Aegyptiaca

10장과 11장 ‘이집트와 레반트가 에게해권과 접촉하다’는 이집트와 레반트가 그리스 본토를 포함한 에게해권과 접촉하고 있었음을 문헌증거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① 투트모세 3세

Kftiw(카프투, 크레타)는 제18왕조에서 특별히 기원전 1470년대 이후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다. 기원전 1470년대 투트모세 3세(기원전 1504~1450년)가 시리아·팔레스타인의 많은 부분을 정복했고, 카프투의 군주들이 파라오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조에는 다음과 같은 금석문이 있다.

그들[카프투의 군주들]이 모든 나라에 대한 폐하[투트모세 3세]의 승리를 전해 듣고는, '생명의 숨결(t3 n 'nb, *타 엔 아네크)'을 얻기 위해, 폐하께 바치기 위해, 폐하의 힘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선물을 등에 지고 왔다.²¹⁾

t3 n 'nb(생명의 숨결)을 받았다는 것은 카프투와 그 밖의 나라들과 관련되어 사용된 용어인데, 버넬은 이집트의 종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투트모세는 에게해권에도 원정하였다.

화살 아홉 개를 함께 묶었다. W3d wr(*와즈 웨르)의 가운데 있는 섬들, H3w nbwt(*하우 네부트) 그리고 반역하는 외국들.²²⁾

W3d wr(거대한 초록, *와즈 웨르)이라는 이름은 이른 시기부터 '바다'를 뜻했으나, 신왕국에 이르면 그것은 지중해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종종 에게해에 국한되었다. 버넬은 H3w nbwt-h3(뒤에) nbwt(섬들), 즉 '섬들 뒤로부터'라는 의미-를 미케네 그리스인들을 나타내는 여러 이름들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H3w nbwt는 「로제타 비문」에서 'Hellene'에 상응하기에 '그리스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② 아멘호테프 3세의 채색도기명판

콤 엘-헤탄에 있는 아멘호테프 3세(기원전 1419~1381년)의 장제전

21) J. Vercoutter, *L'Égypte et le monde égéen préhellénique: Etude critique des sources égyptiennes, du début de la XVIIIe à la fin de la XIXe Dynastie*(Cairo, 1956), p. 57, doc. 9b.

22) 나파타(Napata) 또는 수단 상 나일에 있는 제벨 바르칼(Jebel Barkal)의 비문에서.

(葬祭殿)에 있던 조각상의 다섯 번째 기단에는 Kftiw(카프투, 크레타)와 Tinzy(타나야, 미케네 그리스)라는 두 표제어 하에 에게해권 도시 이름의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이집트인이 적어도 기원전 14세기 초에 에게해권에 관해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파라오의 카르투시가 새겨진 유물이 발굴된 장소들 중에서 다섯 곳은 조각상 기단에 나타난다. 이는 기원전 1400년경 특정 도시들—키도니아, 크노소스, 파이스토스, 미케네, 키테라 섬—과 이집트 왕궁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문헌적·고고학적 증거가 모두 있음을 보여준다.²³⁾



<그림 3> 아멘호테프 3세의 조각상 기단에서 언급된 에게해 지명들. 밑줄 친 장소들은 그의 왕명이 각인된 유물들이 발견된 곳들. BA2, p. 545.

1968년 테일러에 의해 발굴된 아멘호테프 3세의 채색도기명판에²⁴⁾

23) E. Cline, E., "Amenhotep III and the Aegean: a Reassessment of Egypto-Aegean Relations in the 14th Century BC," *Orientalia* N.S., 56(1987), p. 7.

24) Eric Cline, "An Unpublished Amenhotep III Faience Plaque from Mycenae,"

칠해진 유약에 포함된 납을 1970년 코닝 유리박물관(Corning Museum of Glass)의 브릴(R. H. Brill)은 분석하여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였다.

유약의 납은 분명히 L 타입이다. 고대세계에서 L 타입의 대부분은 라우리온 지역의 광산으로부터 왔다. 유약의 납은 18왕조의 노란 유리, 유약, 아이라이너(eyeliner) 같은 데에서 발견되는 납과는 뚜렷이 다르다.²⁵⁾

유약에 사용된 납은 아티카의 라우리온 광산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명판은 어디에서 제작된 것인가? 명판을 만든 높은 기법으로 보아 그리스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에릭 클라인은 그리스로부터 수입된 납으로 이집트에서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다.²⁶⁾ 그는 금속학자 N. H. 게일의 분석을 끌어들이었는데, 그 분석에 따르면 제18왕조 이집트의 다른 세 가지 납 공예물을 구성하는 물질도 아티카의 라우리온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그는 “라우리온 구성 성분을 지닌 이집트의 공예물은 … 그 당시 미케네 문화와 이집트 문화 사이의 접촉을 시사한다”²⁷⁾는 게일의 코멘트를 인용한다. 그리스로부터 금속이 왔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문헌 증거도 있는데 “[W_{3d} W_r]의…가운데에 있는 섬들’이 제19왕조 때 룩소르 신전에 있는 광산의 나라들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²⁸⁾ 기원전 2천년기에 아티카로부터 이집트로 상당량의 금속이 수출되었다는 생각은 그리스 발전에 관한 고립모델을 완전히 뒤엎는다. 게일이 납 분석에 관한 글을 쓴 이후 그의 아내 Z. A. 스토프스-게일은 제11왕조의 은 조각상이 라우리온 은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²⁹⁾ 이것은 금속 교역이 제18왕조의 절정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0-2(Apr.-Jun., 1990), p. 211, 각주 57.

25) BA2, p. 479에서 재인용.

26) BA2, pp. 479-490을 보시오.

27) N. H. Gale, N. H., “Some Aspects of Lead and Silver Mining in the Aegean World,” in C. Doumas, ed., *Thera and the Aegean World: Papers Presented at the Second International Scientific Congress, Santorini, Greece, August /1978*, vol. 2(London, 1980), p. 178.

28) J. Vercoutter, *L’Egypte et le monde égéen préhellénique*, p. 139, doc. 41, pp. 89-90, doc. 19.

기에 만개했지만, 그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상황이 허용되는 다른 시기에도 존재했다는 점을 알려준다.

③ 아멘호테프 4세

아멘호테프 4세 재위 12년(기원전 1369년경)에 'W3d wr의 가운데'로부터 온 사람들이 파라오의 옥좌 앞에서 '생명의 숨결을 받기' 위해 공물을 바쳤다.³⁰⁾

후기헬라스IIIA와 B의 도기가 이집트를 비롯해 동지중해권 전역에서 발굴되자 동지중해의 교역이 미케네 그리스인의 수중에 있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였다. 버넬은 17·18세기 중국자기가 유럽 도처에서 발굴된다고 해서 그러한 자기들을 수송한 배들이 중국인의 수중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가한다. 터키 남쪽 해안에서 발굴된 젤리도나 난파선(기원전 1220년경)과 카시 난파 상선(울루 부룬, 아멘호테프 4세 치세)에서 발굴된 난파선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 배들에는 에게해권 선원만이 아니라 이집트 선원과 레반트 선원을 포함하는 여러 국적의 선원이 다양한 지역의 화물을 싣고 항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원전 1470~1220년 동지중해권은 완전히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였다.

2) 미케네 그리스의 수입품, 이집트의 밀

밀에 해당하는 그리스 단어의 발음은 *sitos*다(선형문자B 서판에서 *sito*로 나타난다). *sitos*의 메소포타미아 어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버넬은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사이보다는 그리스와 이집트 사이에 훨씬 더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으므로 그것이 이집트어 *s(w)t*(밀, *수트)로부터 왔다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³¹⁾ 금속 그리고 미케네의 도

29) BA2, 제4장의 주 23 참조.

30) J. Vercoutter, *L'Égypte et le monde égéen préhellénique*, pp. 134-135, doc. 36 참조.

31) BA2, p. 483 참조.

기에 담긴 상품들—또는 상품들이 담긴 도기 채로—의 대가로 이집트는 어떤 물건을 그리스에게 제공했을까? 밀이라는 그리스어의 그럴듯한 이집트어 어원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이집트로부터 수출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시실리 출신 디오도로스(i.29)의 보고에 따르면, 청동기시대 아테네 왕 에렉테우스는 기근을 덜기 위해 이집트로부터 많은 양의 곡물을 들여와 아테네 왕위를 확보했다.

후기 이집트어에서 'nh(w)(아네크, 아네쿠)는 '생명, 생명의 양식, 양식'을 뜻하였다. 이집트 공식어인 t3 n 'nh(생명의 숨결, 타 엔 아네크)는 외국의 조공사절에게 파라오가 하사하는 정치적·정신적 의미만이 아니라 곡물 공급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지녔을 개연성이 있다. 신왕국 기간에 에게해권의 남과 은이 이집트로 수출되었다는 새로운 증거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기한다. 곧 이집트 곡물을 얻기 위한 급속 교역—상고기와 고전기에 존재했다고 알려졌다—이 이미 후기 청동기시대에 일어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적어도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 곡물을 공급받음으로써 미케네 그리스는 큰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어 자체적으로 생산된 식량은 모자라지만 전문적이고도 세련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버넬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투트모세 3세가 거둔 승리로 '이집트의 평화' 시대가 확립되면서 적어도 기원전 1470년 이래 촘촘하고 광범위한 교역망이 동지중해에 작동했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가정이다. 밀접한 접촉을 보여주는 문헌적·고고학적 증거를 고려하면, 수세기 동안 광범한 언어적·종교적·문화적 교환이 없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또한 이집트 및 레반트 문화의 장구한 전통과 세련됨으로 보건대, 문화의 주도적 흐름은 이집트·레반트로부터 에게해권으로 흘렀지 그 반대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3) Pax Aegyptiaca의 와해와 청동기 시대의 종말

제12장 '영웅시대의 영웅적 종말'에서는 미케네 그리스사에서 실제적인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트로이 전쟁과 그 연대가 논의된다. 트로

이 VIIa은 후기헬라스IIIc의 시작(버넬에 따르면, 기원전 1220년경) 직후에 몰락했다. 고고학적 근거에서 트로이 포위는 기원전 1220~1200년 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파로스 연대기』가 말하는 트로이 전쟁의 연대는 기원전 1218/17-1209/08년이다). 그리스에서의 소요는 기원전 1150년대에 극에 달했고 바로 그때 미케네가 몰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청동기 문명이 몰락한 여러 이유가 있다. 한 가설에 따르면, 근본 원인은 기원전 13세기 4/4분기부터 영향을 미친 기후 이상이 었다. 그런데 이 가설에 따라 연구한 학자들은 미케네 그리스에서 어떠한 장기간의 악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버넬은 이 수수께끼가 기원전 1470~1220년 이집트의 곡물을 수입해 그리스인이 기근의 시기를 이겨 낼 수 있었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기원전 13세기 후반과 12세기의 장기간 쇠퇴가 기후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모두로부터 기인했더라도, 우선적인 그리고 제1의 원인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 시작된 그리스인들이 포함된 ‘바다의 민족들’의 준동으로 인해 ‘이집트의 평화’가 정치적으로 붕괴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수많은 지역에서 청동기 문명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린 최후의 일격은 기원전 1159년 헤클라 III의 폭발 후 발생했던 기후악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III. 버넬의 제2가설에 대한 비판³²⁾

III장에서는 마틴 버넬의 수정고대모델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설 중

32) 『블랙 아테나』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비평으로(연도순, 김봉철, 『서양 고대사학의 새로운 역사해석? - 마틴 버넬(M. Bernal)의 그리스식민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양 고전학연구』, 13(1999); 김경현, 『검은 아테나 여신: 오늘의 미국과 고대 그리스』, 『창작과 비평』, 120(2003/여름); 김덕수, 『서양고대사학계의 ‘이단자’ 마틴 버넬의 『블랙 아테나』』, 『서양사연구』, 34(May 2006); 유윤중, 『서평: 마틴 버넬/오홍식 역, 『블랙 아테나』 (소나무, 2006)』, 『서양사론』, 90(2006. 9); 오홍식, 『유럽중심주의의 극복과 사료로서의 그리스 신화』, 『서양사론』 95(2007. 12). III장에서 필자는 버넬의 수정고대모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비평을 하고자 한다. III장의 글은 필자의 이전의 논문-오홍식, 『다나오스 이전의 아르고스 왕조와 히소스』, 『서양고대사연구』, 27(2010.12)-에 근거하고 있다.

에서 두 번째 가설에 대한 비판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수정고대 모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며, IV장에서 그 이유를 말할 것이다.

다나오스 신화에 역사적 핵이 담겨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여긴 학자들은 소위 학계의 이단자들만이 아니다. 『케임브리지 고대사』 제3판(1973, 아직까지는 최신판이다)에 프랭크 스터빙스는 ‘미케네 문명의 대두’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전설이 말하는 다나오스의 정복과 새로운 미케네 왕조의 도래는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사건이 미케네 수갱묘들에서 나타나는 물질문화의 개화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승에 맞추어, 우리는 기원전 16세기 초에 이집트로부터 쫓겨난 힉소스 지도자들 중의 누군가에 의한 아르폴리스 정복을 가정할 수 있다.³³⁾

그런데 마틴 버넬은 『블랙 아테나 II』에서 스터빙스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런 방식으로 스터빙스는 고대 모델 내에서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틀에서 주요한 결점은 힉소스가 제18왕조에 의해 이집트로부터 축출된 후 ‘탄원자’로서 아르폴리스에 도착했다는 고대 모델의 표준에 대한 충실함에 있다. 기원전 16세기는 고대 연대기인 『파로스 연대기』가 말하는 다나오스 도래의 시기이고, 이 시기를 오늘날의 연표는 힉소스의 축출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결합은 테라 폭발의 연대 재설정 이전에도 가장 이른 수갱묘가 기원전 17세기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손상된다. 우리는 이제 수갱묘가 더 이르게 기원전 1600년보다는 기원전 1700년에 더 가깝게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처럼 이 부분에 관한 그의 틀과 고대 모델은 유지될 수 없다.³⁴⁾

그는 미케네의 가장 이른 수갱묘가 기원전 17세기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힉소스의 그리스 도래는 힉소스가

33) Frank H. Stubbings, "The Rise of Mycenaean Civilization," *Cambridge Ancient History*(1975), vol. 2, part 1, p. 636,

34) BA2, p. 403 그리고 p. 363도 보시오.

이집트로부터 쫓겨날 때가 아니라, 하 이집트에 왕조를 창립한 직후인 18세기 후반이며 다나오스는 그 때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설은 그의 수정 고대모델-고대 그리스인들의 주장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모델-을 떠받치는 두 기둥 중의 하나다.

필자가 제안하는 고대모델에 대한 첫 번째 수정은 기원전 4, 3천년기에 북쪽으로부터 인도유럽어를 말하는 자들의 그리스 침입 또는 침투가 있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자는 것이다.³⁵⁾ 필자가 원하는 두 번째 수정은 다나오스의 그리스 상륙을, 고대의 연대기가 말하는 대로, 히소스 시기의 말인 1575년이나 그 이후로 잡지 말고, 그 시초인 기원전 1720년경으로 잡자는 것이다.³⁶⁾

스터빙스와 버넬 모두 히소스의 축출 시기 이전에도 미케네 그리스의 물질문화가 히소스의 물질문화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동일하다. 두 사람 모두 중기미노아III(MMIII) 시기-이 시기가 스토티빙스는 1700년부터, 버넬은 1730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부터 히소스의 물질문화가 그리스 본토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두 학자의 차이점은, 버넬이 다나오스를 기원전 18세기 인물로 잡고 히소스가 직접 그리스 땅을 정복한 결과 그러한 물질문화가 남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스토티빙스는 크레타를 통한 간접적인 확산을 시사한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저자들이, 두 학자들의 생각처럼, 다나오스 이전에 그리스 땅에 도래한 히소스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우선 다나오스 이전 아르고스 왕조의 족보를 사료에 근거하여 작성해보자.

35) 버넬은 아리안주의자들(정통론자들)이 주장하는 기원전 23세기경 인도유럽어를 말하는 자들의 그리스 남침-이 남침은 고대 그리스 기록에는 언급되지 않았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연대를 상향조정하여 기원전 25세기로 보고 있다. *BA2*, p. 150을 보시오.

36) 『블랙 아테나 I』, pp. 55-56. 그리고 두 번째 수정의 근거에 관해서는, *BA2*, p. 41을 참조하십시오.

1. 다나오스 이전의 아르고스 왕조

<표 2> 다나오스 이전 아르고스 왕조의 족보와 중요 연대들

| 이집트에서, 이오의 후손들 | 미케네 그리스 |
|---|--|
| <p>① 이오</p> <p>(제우스)텔레고노스=이오→</p> <p>(1600-1559)에파포스=멤피스</p> <p>포세이돈 = 리비에</p> <p>안키노에=벨로스 아게노르</p> <p>아이집토스 다나오스 카드모스</p> | <p>테티스 = 오케아노스</p> <p>이나코스 = 멜리아</p> <p>① 이오 아이기알레우스 포로네우스</p> <p>제우스=니오베 아피스</p> <p>아르고스 펠라스고스=멜리보이아</p> <p>포르바스 리카온</p> <p>(1628 대홍수)트리오파스 닉티모스</p> <p>이아소스 크산토스 아게노르</p> <p> (레스보스)</p> <p>② 이오 크로토포스</p> <p>스테넬라스</p> <p>젤라노르</p> <p>(1511/10 도래) 다나오스</p> |

아폴로도로스(ii.1.1)와 파우사니아스(ii.16.1)의 기록을 근거로 이나코스로부터 다나오스 도래에 이르는 시기의 족보를 구성하면 위 도표의 오른쪽과 같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보통 이오는 이나코스의 딸로 알려

져 있는데(헤로도토스, i.1.1), 아폴로도로스와 파우사니아스는 이아소스의 딸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오는 방랑하다가 이집트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후손들을 두게 된다. 이나코스 후손 족보와 아폴로도로스(ii.1.4)에 근거한 이오의 후손 족보를 병립시켜 보자. 이오와 그 후손들의 족보는 <표 2>의 왼쪽 부분에서 ①이 아니라 ②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오는 이나코스의 딸이 아니라, 이아소스의 딸이다.

상기의 족보에서 절대연대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데우칼리온의 홍수이다. 버넬은 데우칼리온의 홍수가 테라폭발에 뒤이은 쓰나미 효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폭발 연대들 중에서 기원전 1628년 설을 받아들인다. 팔자도 동의한다. 아폴로도로스(iii.8.1-2)는 데우칼리온의 홍수가 아르카디아에서는 리카온의 아들 닉티모스의 치세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홍수가 아르고스에서 어느 왕의 치세에 발생하였을까? 니오베의 후손들로서 닉티모스와 트리오파스가 같은 세대이니(<표 2>를 보시오) 아르고스에서는 트리오파스 치세에 그 홍수가 발생하였다.³⁷⁾

2. 다나오스, 재판을 통해 아르고스 왕이 되다

이집트인들에게 축출된 다나오스가 그리스 땅 아르고스에 당도하자, 아르고스 왕위를 놓고 기존의 왕 스테넬라스와 다툰다.

아르고스에 도착하자 그는 스테넬라스의 아들 겔라노르에게 왕국을 양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많은 그럴듯한 주장들이 양쪽에서 제기되었고, 스테넬라스의 주장들이 반대파의 주장들만큼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재판하기 위해 앉아있었던 사람들은 이튿날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그들은 말한다(ὁ μὲν δῆμος ὑπερέθετο-φασὶν-ὲς τὴν ἐπιούσαν κρῖναι). (파우사니아스, ii.19.3)

37) 디오도로스, v.81.1-3도 참조하십시오.

다나오스가 아르고스를 전투를 통해 접수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아르고스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다나오스는 아르고스의 왕 스테넬라스보다 자신이 아르고스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스테넬라스와 다나오스가 혈연적으로 연결되었을 경우에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리오파스의 아들 중에는 이아소스와 아게노르가 있었는데(<표 2> 참조), 왕위는 이아소스에게로 이어졌다. ‘이아소스의 백성들(Ἰασιδαί)’과 ‘이아소스의 아르고스(Ἰασὼν Ἀργός)’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아소스 치세에 아르고스는 번영을 맞았는데(스트라본, viii.6.9), 그 다음 왕위는 이아소스의 혈통이 아닌 자에게로 넘어간다. 왜 그랬던 것일까?

트리오파스는 이아소스와 아게노르를 낳았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상황 하에서이든 그리스인들이 이야기하는 상황 하에서이든, 이아소스의 딸 이오는 이집트로 갔다. 이아소스 이후 아게노르의 아들 크로토포스가 왕좌에 올라… (파우사니아스, ii.16.1)

이아소스의 딸 이오가 이집트로 건너갔고, 아르고스의 왕위가 이아소스의 형제 아게노르의 아들인 크로토포스에게로 이어졌던 것이다.

파우사니아스(ii.16.1)는 다나오스가 “아게노르의 후손의 왕국 계승권을 정지시켰다(τοὺς ἀπογόνους τοὺς Ἀγήνορος βασιλείας ἔπαυσεν)”고 기술하고 있다. 이아소스의 후손 다나오스는 아르고스에 도래하여 아게노르의 후손 겔라노르에게 혈통을 앞세워 아르고스 왕위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아르고스인들이 재판을 통해 인정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나오스를 축출된 힉소스와 관련된 인물로 보고, 이러한 다나오스의 왕위 요구가 정당하려면, 다나오스 이전의 아르고스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³⁸⁾ 그렇다면 버넬의 주장과는 달리, 다나오스는 그리스에 도래한 최초의 힉소스가 아니다.

38) 도리스족이 침입했을 무렵 힉소스 왕조인 테베 카드모스 왕조의 마지막 왕 아우테시온의 아들 테라스가 테라 섬의 왕이 된 경우를 참조하시오(헤로도토스, iv.147.4-5).

IV. 버널의 공헌

1991년 『블랙 아테나 II』가 출간된 이후 버널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격렬해졌다. 이제 그가 미케네 그리스와 이집트 및 레반트 사이의 관계사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증거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내놓자 그 증거들을 중심으로 논쟁의 장이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6년에 출간된 메어리 레프코위츠와 G. M. 로저스가 16명의 전문학자들의 반론들을 편집한 *Black Athena Revisited*가 출간되어 『블랙아테나 II』에 대한 본격적인 반론들이 결집되었다.³⁹⁾ 버널은 제3권을 집필 중이었으나⁴⁰⁾ 이를 미루고 이에 대한 반론의 책인, *Black Athena Writes Back*(2001)을 출간하였다.⁴¹⁾ 『블랙 아테나』에 대한 반론과 그의 재반론이 담겨 있으니, 이 책은 그의 주장을 독자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블랙 아테나 II』를 비평한다면, 그의 방대한 저서 속에 담겨있는 적지 않은 부분들은 논박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청동기 시대 그리스는 동지중해권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그의 주장의 큰 틀에는 이렇다 할 논박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앞 장에서 필자는 버널의 수정고대모델을 지지하는 두 기둥 중의 하나를 비판하였다. 필자는 다나오스의 도래 연도는 고대 그리스 저자들이 한결 같이 기록하고 있듯이 히소스가 축출될 때인, 「파로스 연대기」에 따르면 기원전 1511년에 도래한 것이지, 버널이 주장하듯이 히소스가 하 이집트를 정복한 초기인 기원전 1700년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의 기본적인 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는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17세기에 속하는 미케네의 수갱묘가

39) Mary R. Lefkowitz & G. M. Rogers ed, *Black Athena Revisited*(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40) M. Bernal, *Black Athena: The Linguistic Evidence*(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New Jersey, 2006).

41) M. Bernal, *Black Athena Writes Back: Martin Bernal Responds to His Critics*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London, 2001).

크레타 같은 곳을 통해 간접적으로 히소스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이 아니라 히소스의 직접적인 정복과 지배를 통해 남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밀리 버널이 “정직하게 말하면, 중기헬라스 그리스는 수갱묘의 격렬한 화려함을 꾸밀 만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⁴²⁾ 기술하고 있듯이, 수갱묘는 히소스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아 그 당시 그리스의 경제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묘가 아니다. 그리스 문헌에 나오스 이전에 그리스 땅에 도래한 히소스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 버널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나오스의 도래를 1700년경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 아테나』는 고대 그리스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 국면에서 그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결점들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인 스탠리 버스틴(1941년 출생)은 『블랙 아테나』가 공헌한 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블랙 아테나』가 결점을 지녔다고 해서, 당대 그리스인들의 역사서술의 신빙성을 보이려는 버널의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리스인들의 역사서술을 진지하게 읽어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건성 읽기는 『블랙 아테나』식의 사료 읽기를 견디어낼 수 없을 것이다. 『블랙 아테나』식의 사료 읽기 하나만으로도 버널은 모든 사람들의 감사를 받을 만하다. 또한 그는 그리스 문명의 기원에 관한 의문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학의 화두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감사를 받을 만하다.⁴³⁾

버스틴은 미케네 문명의 기원이 이집트와 레반트에 있었다는 고대 그리스 저자들의 기록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버널의 큰 업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블랙 아테나』를 4권으로 기획하였고, 현재 제3권까지 출간되었

42) E. Vermeule, *Greece in the Bronze Ag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 81.

43) Stanley M. Burstein, *Untitled*(Reviewed work: *Black Athena, Volume 2: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by Martin Bernal), *Classical Philology*, vol. 88, no. 2(Apr., 1993), p. 162.

다. 독자들은 물론 학자들조차도 『블랙 아테나 II』을 읽고 의문이 생겨 날 것이고 그러면 다음 책이 출간되어 의문을 해소해줄기를 바란다. 제 2권의 서론 초두에서 그는 “내가 이 책에 대해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되어야 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뿐이다”고⁴⁴⁾ 말하고 있다. 그가 제기한 문제를 그 혼자서 해결해줄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가 던진 화두를 지난 2세기에 걸쳐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풀려고 했듯이, 버넬의 화두도 그러해야 한다.

(서강대학교 사학과)

〈투고일: 2011. 4. 30, 심사일: 2011. 5. 7, 게재확정일: 2011. 6. 25〉

44) 『블랙 아테나 I』, p. 614; *BA2*, p. 1.

<Abstract>

Ancient Greece and the Eastern Mediterranean *Koine*: *Black Athena I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by M. Bernal

Hung Shik Oh

In *Black Athena I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1991) M. Bernal presents the evidence from archaeology and the Bronze Age documents to show that the Mycenaean civilization was formed by the influence of Egypt and Levant (including the colonization of Greece by the Hyksos). All the chapters of *Black Athena II* are closely connected as if the work is one organic entity. This is possible only if he perceived the main stream which flowed into the Eastern Mediterranean in the Bronze Age. He argues that the agricultural affluence and civilization of ancient Egypt contributed to the birth,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Aegean civilization which covered Crete, the Cyclades and the mainland Greece.

Even though some flaws can be found in *Black Athena II*, his basic scheme is solid. For example, Bernal argues that Danaus was a historical figure around 1700 BC, on the ground that the earliest Shaft Graves (an aspect of Hyksos material culture) had to have been dug even earlier, close to 1700 BC. However, the ancient Greeks unanimously mentioned him as a figure who had been expelled from Egypt in the 16th century BC. We must not ignore Greek historiography. I contend that the dynasty in Argos before Danaus was the Hyksos dynasty.

Triopas, the Argolian king, had two sons (see the chart below): Iasus and Agenor. Iasus succeeded Triopas. Argos flourished in the reign of Iasus so that there were terms such as 'Iasidae (Iasian people)' and 'Iasian Argos' (see Strabo, viii.6.9). However, Crotopus, the son of Agenor, succeeded Iasus because Io, the daughter of Iasus, went to Egypt (Pausanias, ii.16.1). Danaus, who came from Egypt as a descendant of Io, secured the Argolian kingship not by battle but by judgment (Pausanias, ii.19.3-4). Danaus must have demanded the Argolian kingship from Gelanor on the ground of being Iasus' sixth generation, that is, the right of priority in the succession. If Danaus' demand for the succession could be justified,

the Argolian dynasty before Danaus must be the Hyksos dynasty.

Although I'm arguing in favor of my opinion, it cannot affect Bernal's basic scheme. This is because he argues with high plausibility that the reason why archaeologically Mycenaean Greece was of the Hyksos material culture from around 1700 BC is the Hyksos' conquest of Greece, rather than the indirect influence through Crete. Instead of criticizing the flaws of *Black Athena*, we must be concerned with "a case to be answered" of the origin of Greek civilization which *Black Athena* provides especially on the basis of Greek historiography.

(Sogang University / oh-elpis@unitel.co.kr)

주제어(Key Words)

1. 마틴 버널(Martin Bernal)
2. 『블랙 아테나 II』(*Black Athena II*)
3. 동지중해권(the Eastern Mediterranean *Koine*)
4. 이집트의 평화(Pax Aegyptiaca)
5. 다나오스(Danaus)

